

# “비용 상승에 고물가로 제주여행 부담”

# 제주항 하역 항운노조 독점 깨지나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항소심서 ‘항만노조’ 승소

### 국토교통부 하계 휴가철 통행실태 설문조사 결과 휴가 7월말~8월초 집중... 여행지는 동해안 선호 관광비용 늘어 제주여행 선호도 1년새 7.8%p 감소

올 여름 휴가철 제주여행 선호도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에 항공요금과 숙박비 등 여러 가지 관광 관련 비용이 오르면서 제주여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1만4968세대를 대상으로 하계 휴가철 통행 실태에 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휴가를

간다’는 응답은 64.5%, ‘휴가를 안간다’ 또는 ‘미정’이라는 응답은 35.5%(각 9.7%·25.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휴가를 간다’라는 응답은 26.7% 증가했고, ‘휴가를 안간다’와 ‘미정’이라는 응답은 각각 8.5%, 18.2% 감소했다.

휴가를 가지 않거나 미정인 이유는 ‘일정조율 필요’(33.3%) 응답이 가장 많았고 ‘휴가비용 부담’

(16.4%), ‘업무·학업·생업’(16.1%), ‘코로나19 때문에’(13.9%) 등 순이었다. 특히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난해(74.7%)보다 60.8%p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2.5%이던 ‘휴가비용 부담’ 응답은 계속되는 유가 급등·물가 상승 영향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국내여행 예정 비율은 지난해 99.3%에서 93.3%로 줄고 해외여행 예정 비율은 지난해 0.7%에서 6.7%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여행 출발예정 일자는 ‘7월 30일~8월 5일’이 17.9%로 가장 많았고 ‘8월 20일 이후’와 ‘7월 23일~7월 29일’이 각각 15.4%, 13.9%를 차지했다.

국내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7%)이 가장 많고 ‘남해안권’(18.5%), ‘제주권’(12.2%), ‘서해안권’(10.6%), ‘강원내륙권’(7.9%)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주권, 남해안권, 호남내륙권은 감소한 반면 그 외 권역은 골고루 증가했다. 특히 제주는 고물가에 항공요금, 숙박비용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7.8%p(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27.7%로 가장 높았고 ‘3박 4일’(19.1%), ‘6일 이상’(16.3%)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지난해 87만7000원에서 95만2000원으로 7만5000원가량 늘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경기자

### 작년 8월 1심 재판부 판결 “공정 경쟁·시장원리따라 수요와 공급 균형 이룰 것”

제주에서 독점적으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는 제주도 ‘항운노조’를 대항하는 노조가 생길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제주도 ‘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항만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유는 >전국 대부분 항만에서 1개의 노조에게만 근로자 공급 허가를 내주고 있는 점 >제주항 일원에서 독점적으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는 항운노조가 있는 점 등이다.

이번 판결로 제주항에서 발생하는 하역 물량은 노동자 독점 공급자였던 항운노조와 함께 이날 승소한 항만노조까지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항의 하역 물량은 제주 전체의 80~90%를 차지한다. 1946년 설립된 항운노조는 1984

년 5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제주항을 비롯한 도내 각 항만에서 유일한 근로자 공급사업자로 활동했다. 항운노조 노동자 1명당 평균 연봉(2018~2020년)은 7000만원 이상이다.

항소심 선고 직후 만난 항만노조 관계자는 “4년 동안 조합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전에 임했다”며 “제주도는 대법원 선고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항운노조 인원은 430여명이고, 우리는 60여명이다. 제주항에 항만노조가 들어간다고 해도 항운노조의 밥 그릇을 크게 뺏지 않는다”며 “항만노조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노동의 질 향상과 함께 하역 요금에 대한 입찰 경쟁으로 물류비 하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신규 근로자 공급사업 신청을 허가할 경우 공정한 경쟁 내지 시장원리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항만 하역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 오늘까지 비 날씨... 지역마다 강풍 동반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남부·서부·산지·추자도에 최대 70mm, 그 밖에 지역은 5~3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주의해야 한다. 21일 제주지역에는 바람이 초속 8~16m로 불 것으로 예상되며 순간풍속은 초속 20m 이상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21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2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6~28℃, 낮 최고기온은 28~31℃로 예보됐으며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5℃, 낮 최고기온은 28~30℃로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21일 오후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며 높은 습도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바다의 날씨는 22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문해수욕장은 22일까지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즉 역파도로 불리는 이안류 가능성이 있어 물놀이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김도영기자



항몽유적지 비밀의 정원 20일 제주시 애월읍 항몽유적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비밀의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독자제보 750-2232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정부는 국토부 제주2공항 검토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제주도민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22년 7월 20일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토부는 4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6개월간의 검토로 극복할 수 있다는 ‘보완 가

능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제2공항 강행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강행 추진 명분으로 작용하는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제2공항 계획 핵심 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가감 없이 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비례대표)**

**원 화 자**  
배우자 : 한재림(합덕초 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합덕초등학교 29회 동창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이 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돌담로타리클럽**  
회장 누림 현 총 협 의 회원 일동

**축 선**  
CONGRATULATION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장**

**이 동 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11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일동**

**축 상**  
CONGRATULATIONS

**이달의 새농민상**

**조은호·조창숙 부부**  
(한경라이온스클럽 27대회장)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한경라이온스클럽**  
회장 양윤수 L 외 회원 일동